

건강 칼럼

핵전쟁은 제3차 세계전쟁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핵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 부른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 의해 엄청난 파괴력을 얻는 무기를 말한다. 핵무기 운반수단(미사일)과 핵탄두를 통칭하여 핵무기라고 한다.

핵반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 등은 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된 핵반응 여부에 따라 핵분열 무기는 원자폭탄이라 하며, 핵융합 무기는 수소폭탄이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가공할 핵무기가 나치 독일에 의해 먼저 개발될 것을 우려했다.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실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곧바로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 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시카고 대학교로 이어지면서 핵분열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었다.

1941년 12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대규모 연구 기금의 마련과 핵분열 물질의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핵무기의 개발이 지연되자 유럽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핵무기는 일본으로 그 목표를 이동하게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되었다.

1945년 4월 12일 루스벨트 대통령 사후 트루먼이 그 뒤를 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장관 헨리 스티븐슨으로부터 원자폭탄 개발 상황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 후 4월 25일 스티븐슨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더욱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원자폭탄을 싣고 가기 위한 수송 기로는 여러 대의 B-29기가 개조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으로 2,400km 떨어진 지점 마리아나 제도의 타니안에 보조시설이 만들어졌다. 플루토늄 무기의 실험은 '트리니티'라고 명명되었다.

이 실험은 뉴멕시코 주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앨라모고도 폭파 실험장에서 실시되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현지시간) 에놀라 게이라고 명명된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廣島) 상공으로 날아갔다.

지시각)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 폭탄은 500m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파괴력은 21kt으로 추정된다. 나가사키 시의 절반가량이 파괴되었고 주민 27만 명 중 7만 명이 죽었다.

여전히 이라나나 북한 등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원전은 북한 핵미사일의 폭발로 인한 공격에 아무 대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핵미사일이 직접 원전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모든 원전이 냉각을 못해서 자체 폭발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도 심각한 문제다.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원전은 스스로 냉각을 못해서 자체 폭발하여 대규모 방사능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원자폭탄은 연쇄반응이 수백만분의 1초 동안에 일어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된다. 소규모의 지역적인 핵전쟁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인명 피해와 동일한 직접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 기후환경도 10여 년 동안 오염시킨다. 핵무기는 인류가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핵 확산 여제가 절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핵확산 여제 정책만이 모든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

거세지는 미중 압박 K-반도체

미중 압박으로 K-반도체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어 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데 500억 달러, 우리 돈 66조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20%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반도체 강국'을 자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백악관은 미국의 반도체 대책회의 지리에 삼성전자를 불렀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재편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미국 애리조

나에 120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인텔 역시 200억 달러를 들여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란 소비시장과 미국이라는 첨단시장의 중간 역할을 잘해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와 5G 분야의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 미국 양국 모두로부터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업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독보적인 세계 1, 2위이다. 그러나 차량용 등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확보도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중 패권 다툼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완주군 동상면 주민 시집 출간

전북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의 사연을 채록해 만든 시집이 잘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동상면은 국내 8대 오지(奧地)로 불릴 만큼 험한 산세로 유명하다.

최근 동상면 화동마을의 여산재에서 국내 최초 주민 채록 시집 '동상면: 흥시 먹고 뽕은 말이 시가 되다' 출간회를 열었다. 270쪽의 시집은 '호랭이 불어 가네'와 '다시 호미를 들다' 등 6부로 나뉘어 총 150여 편의 글을 담고 있다.

"영감 산자락에 묻은 지 수년 지나 / 백 살에 초승달 허리 이마 주름 뒤덮는데 / 왜 어찌 날 안 데려가요이, 제발 후딱 데려가소, 영감" 101세인 백성례 할머니의 '영감 땀감'이란 시(詩)의 한 구절이다.

시집은 주민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엮여졌다. "참 곱다 / 붉은 사과처럼 / 참, 곱다 / 내 / 짧은 참손 / 저 바닥으로 / 체운 삶 / 황혼에 그린 / 텃밭" 이는 김형순 시 '여뀌'이다. 다섯 살배기 박재현 어린이의

'강아지'는 "우리 집 강아지 미오는 / 안아달라고 명명명 / 우리 집 강아지 딸기 / 안아달라고 월월월"이다. 산골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성을 전했다.

시집 출간에는 박병운 동상면장의 힘이 컸다. 시인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면장 취임 이후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작품을 팔았다.

어르신들을 찾아가 듣고 적고 녹음하면서 진득한 사연을 담아냈다.

발전해 두 차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원고가 만들어졌고 전국 최초로 구술 채록 시집이 탄생했다.

박 면장은 "가슴 속 깊이 맺힌 어르신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시집에 담고 싶었다"며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 모두가 시집의 주인공들"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시를 읽는 내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에 겪어야 했던 아픔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울먹었다"고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촌에서는 여전히 농기계인 경운기는 운가의 필수품으로 농번기에 앞서선 안될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교통수단이다.

더욱 대부분 농기계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촌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이나 무리한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차량보다 느리고 후미등이 없어 야간에 식별이 곤란해 추돌사고 발생시 생명이 위협한다.

둘째 영농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농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되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 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셋째 경운기에 경광등이나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야간운행때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야간 주행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차량에 비해 중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해 농기계 운행 시 안전운행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 정전하 고충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턴밀란, 세리에A 11년 만에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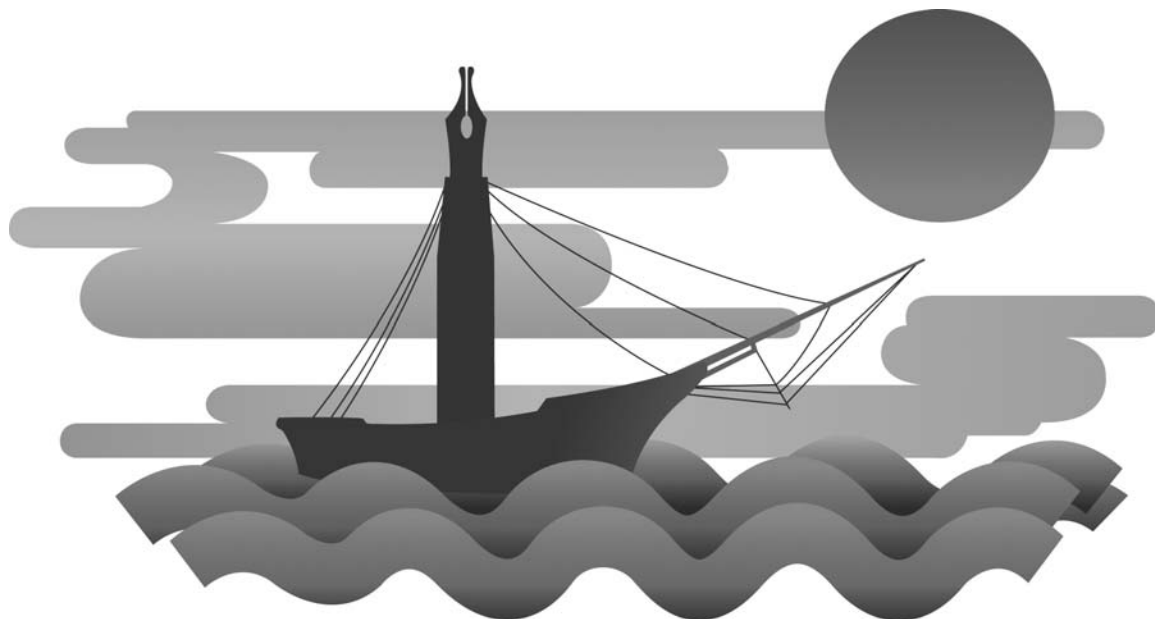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2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피아자 두오모 광장에 모인 팬들이 인턴 밀란의 2020-21 시즌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인턴 밀란은 크로토네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기고 2위 아탈란타가 사수올로와 1-1로 비기면서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